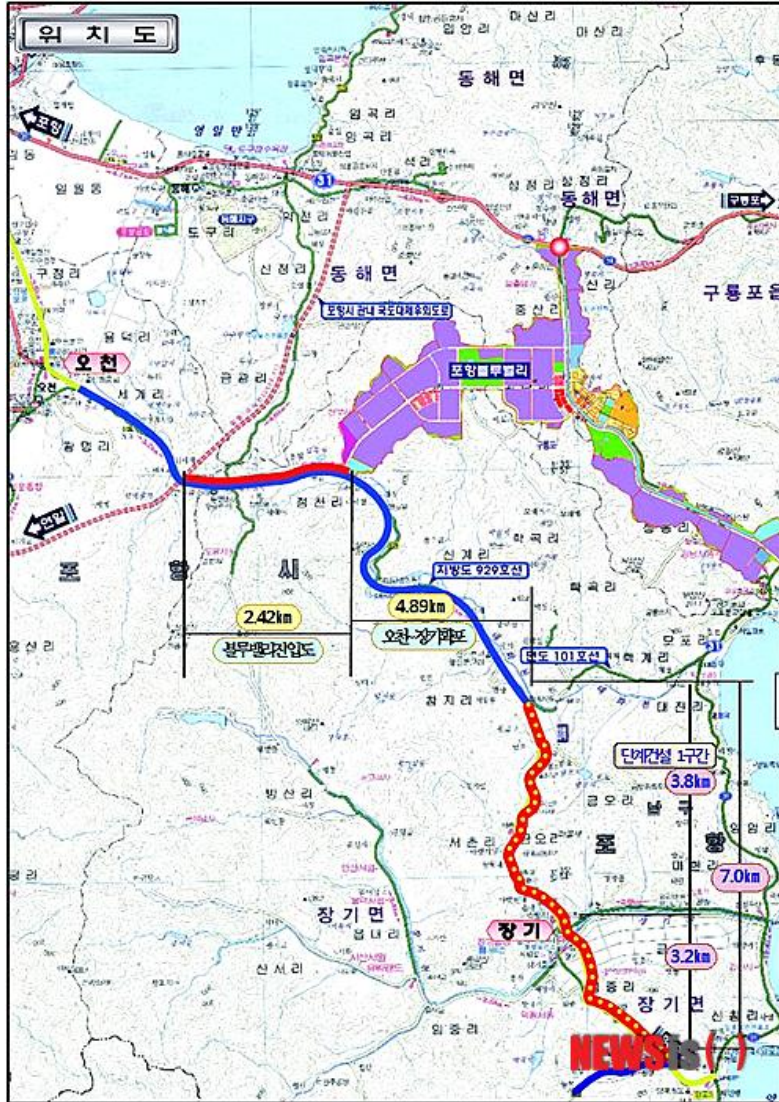


박명재 의원, 장기 창지리~양포리 간 확·포장 600억 투입

등록 2014.10.12 14:28:20 | 수정 2016.12.28 13:29:57



【포항=뉴시스】강진구 기자 = 새누리당 박명재(포항남·울릉) 국회의원은 “포항 오천읍~장기면 창지리 간 지방도 929호선 4차로 확·포장사업에 총 사업비 600억원을 투입해 당초 계획보다 7km 연장된 양포삼거리까지 추진된다”고 12일 밝혔다.

또 “섬안큰다리 보수공사 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관련 예산이 당초 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증가했다”고 덧붙였다.

박 의원은 이어 “지난해 말부터 이 사업의 연장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”며 “이 연장사업은 1단계 창지리~읍내리 간 3.8km와 2단계 읍내리~양포리 간 3.2km로 나눠 추진되며 총사업비 600억 원이 투입된다”고 강조했다.

또 “오천~양포리간 확포장 사업은 국가산단 블루밸리 조성 및 동해안권 개발 및 관광지 사업과 연결돼 현재 하루 7800여대의 교통량이 앞으로 1만2000여대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구간의 병목현상 발생이 우려돼 연

장에 나서게 됐다”며 “내년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토지보상과 함께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dr.kang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